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 은 주¹⁾ · 이 기 종²⁾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KEEP)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미래 진로결정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인 중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결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여부에 따른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진로결정을 한 집단의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 점수가 진로미결정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및 집단분류의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에 의해 진로결정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여부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 학교생활만족도를 제외한 수업태도만 진로결정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이 고도로 분화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직업의 세계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직업들을 모방하거나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져서 소멸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역동 속에서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직업의 이해와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 가운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진로와 관련하여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면, 자신의 전공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대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나 취업을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여 자신의 역량을 길러나가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문제의식조차 없는 학생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박완성, 2005).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후기 청소년기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학생들은 대학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신의 진로는 무엇인지, 앞으로

1) 경북대학교 유아교육과

2)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명확한 인생목표를 가지고 확신에 찬 진로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상당수의 학생들이 상담실을 내방하여 진로 영역에 대한 객관적인 심리검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

대학생은 다른 영역에서보다도 진로 및 직업세계의 영역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재학 중 자신이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한다. 진로문제는 인생의 전반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이며 직업결정은 자신의 적성, 흥미, 능력, 특히, 대학에서의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미래 직업결정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인 중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란 ‘개인 스스로가 설정해 놓은 진로나 향후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전공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산물(하혜숙, 1999)이라 한다. 전공만족은 스스로의 기대와 타인과의 비교 등에 의해서 판단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개인의 기대나 타인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 인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지각이 전공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생들은 전공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즉, 학업성적, 개인의 성별, 적성, 재능, 지능 등과 같은 개인적인 결정요인 이외에, 부모 또는 교사와 같은 타인의 의한 영향, 사회의 교육제도, 산업구조, 사회계층배경 등 외부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의 효과로 인해 결정되어지는 결과이다. 이러한 개인적, 외부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그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대학생활 자체가 전공 영역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공에 따라 진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임용수, 1993). 즉, 전공만족이란 개인이 결정한 전공에 대한 기대치에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하는가에 대한 수준과 개인 뿐 만이 아니라 자신이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에 의한 평가 정도를 나타낸다.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학교 또는 전공에 대한 적응 정도, 전공에 대한 선택 이유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신이 입학하기 이전부터 다니길 희망했던 대학교에 들어왔을 경우 자연스럽게 자신과 학교를 동일시하는 면이 생겨나며 학교와 전공에 대한 관심도 역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학업생활에도 더욱 충실히 하게 되며, 이것이 학교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자신의 전공이 적성 및 흥미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가 대학생활 동안의 전공만족도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수업태도

태도는 어떤 특정 대상의 집단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적인 매너로서 학습에 의해서 습득되는 것이다. 즉, 태도는 행동의 경향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일반적 정서 상태를 나타내는 심리적 요인으로 논의된다. 태도라는 개념은 심리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정치학, 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중심과제의 하나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태도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중개하는 중개요인으로서의 심리적인 특성으로 해석되며, 사회적 행동은 자극-태도 반응의 관계로 표시된다. 이러한 태도는 자극과 반응의 연쇄 과정에 개입하는 동기적, 지각적, 평가적 기능을 담당하여 행동을 어떠한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반응 가능성을 내포한다(권지혜, 2000).

수업이란,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내·외적 환경을 조작해 가는 몇 가지 변인들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수업의 특징은 첫째, 일정하게 정해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수업은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그 목표는 사전에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업은 계획이나 설계가 필요한 활동이기도 하다. 수업목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새로운 행동·지식·기술·태도의 획득일 수도, 기존의 그것들에 대한 변화일 수도 있다.

둘째, 수업은 학습자의 내·외적 환경을 조작해 가는 활동이다. 내적 환경은 학습자의 심리적 환경으로서 학습동기의 유발이나 학습전략의 수립 등을 말하고, 외적 환경은 물리적 환경으로서 학습을 촉진시키는 물리적인 제반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셋째, 수업은 몇 가지 변인들의 상호작용과정이다. 상호작용이란 서로 순환적이거나 상호교환적인 영향 또는 의사소통을 말한다. 수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으며, 또 이들 변인간의 영향은 상호작용적이므로 수업의 효과나 결과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업태도란 수업목표에 대한 인식태도, 수업활동에 대한 참여태도, 수업평가에 대한 수용태도를 의미한다.

3. 학교생활만족도

만족이란 용어는 행복감이라는 용어와 함께 동의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나 용어 간에는 약간의 차이를 갖고 정의되어진다. 즉 만족은 개인이 가지는 기대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상과의 일치라는 견해가 있다(김정민, 2006). 이는 특별한 면에 대하여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보는 견해이다. 일부 학자에 의하면 만족이란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삶의 질은

그 내용이 열망, 기대, 행복, 만족 등과 같은 주관적 삶의 측면과 관련이 있는데 이 삶의 지표는 만족에 더욱 강조를 두어야 한다. 만족은 행복, 열망, 기대보다 그 준거가 더욱 구체적이며 행복이 나타내지 못하는 기대감 또는 열정의 준거기준을 내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만족도는 상황에 대하여 함수관계가 있는 안정적인 하나의 지표차원에서 측정되며, 개인 삶의 환경에 대한 평가와 과거의 경험 및 관찰에서 비롯되는 내적기준간의 산물로 주장한다.

만족과 함께 사용하는 용어로서 행복감은 인지된 삶과 기대하는 삶과의 격차를 만족 또는 불만족의 차원으로 측정하면서, 행복이란 긴장으로부터의 자유와 동의어로 사용하였으며, 행복감은 현재의 유쾌한 감정을 느끼는 일시적인 기분이나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를 주안점으로 두고 기술하였다. 이렇듯 만족과 행복사이에는 약간의 차이를 갖고 의미가 파악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의 구성요인으로 행복감을 갖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만족은 학교만족 차원에서 어떻게 의미를 나타내는가? 학교라는 용어는 사전에서 교육 학습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학생들을 모아 일정한 교육 목적 아래 교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하여 학교-교사-학생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생활 만족도는 각 개인이 학교에 대하여 갖는 주관적인 감정 상태로서 기쁨-슬픔-불행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감정이며 만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다양하다. 조성희(2011)는 대학생활만족도를 Baker와 Siryk(1989)의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에서 대학에 대한 유대정도와 자신이 속해 있는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정도로서,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학업목표에 대한 몰입정도를 판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4. 진로결정

진로선택의 문제는 개인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진로와 외적인 영향으로서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사회적 지지에 대한 개인 인식의 정도가 개인의 진로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진로결정에서 가족 내의 변화와 일의 상호교환 증가 등이 새로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진로결정은 대학생들이 전공 선택 및 직업선택과 관련한 진로결정과정에서의 진행 수준과 장래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정도, 곧 역으로 진로미결정 수준을 의미한다(고향자, 1992). 진로결정 혹은 진로미결정이라는 개념은 왜 한 집단 안에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확실한 결정을 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 Tolbert(1980)는 진로를 선택하는 일은 개인이 결정해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의 하나라고 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즉 우리가 선택한 진로에 따라서 능력 발휘의 기회, 주거지, 교우의 유형,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치관과 태도, 정신 및 신체적 건강, 가족 간의 관

계 등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이 시기의 성공적인 진로선택은 개인에게 있어 성인기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발달 과제로써,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진로결정에서 직업선택은 장래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진로결정수준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아야 한다.

Crites(1981)에 따르면 진로미결정은 개인이 직업선택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단계에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는 진로미결정의 원인으로 그 개인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의 구성요소보다는 정보의 부족, 진로결정에 대한 학습부족, 진로선택에 대한 체험 요소부족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부족 요소의 보충을 강조하였다. 강선영(1998)은 진로결정이란 바람직한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 설계와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진로발달이 이루어진 결과, 진로를 결정해야 할 결정적 시기에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 상태 또는 그러한 결정을 의미한다면 진로미결정은 진로결정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의 부족,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한 인식과 정보의 부족, 선택에 대한 두려움, 자신과 환경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지각하지 못한 것 등의 이유로 진로를 아직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같이 진로결정수준은 진로미결정과 진로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어느 한 지점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높은 점수는 확고한 진로결정을 의미한다(김봉환, 1997).

진로결정은 완성과 마침의 의미보다는 발전과 과정의 단계로써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해되고 정의되고 있다(Super, 1957; Browne, 2005; 김봉환, 1997). Super(1957)는 청년기를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탐색을 하는 시기로 정의하면서 이 시기에는 자신의 생각을 성숙시키고 미래의 직업선택을 위하여 예비활동을 하는 시기로 인식하였다. 또한 진로결정은 개인이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선택 시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결정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써, 개인이 특별한 직업에 입문하기 위한 의도의 표현이다(Crites, 1973). 그러므로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음을 의미하며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혹은 졸업 후의 구체적인 직업분야에 대한 선택 등을 뜻한다(김봉환, 1997).

Ginzberg(1960)는 진로발달 이론에 기초하여 연구한 직업선택 이론에서 대학생의 시기는 특정한 진로 분야에 전념하게 되는 단계로써 말하는 능력과 흥미가 통합되며 현실의 자신을 구체화 시키는 단계에 해당되며, 개인의 직무나 특정 진로의 선택을 위한 전문적 훈련을 선택하는 단계인 전문화 단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또한 Super(1957)는 대학생의 시기를 탐색기와 시행기로 보고, 탐색기에서는 자아를 검증하고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업 선택의 폭을 좁혀 시험적인 노력을 하게 되며, 이후 시행기에서는 직업 선호를 위한 훈련을 완성하고 고용에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 시기의 진로결정은 개인의 발달과업을 이루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5. 진로결정관련 요인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으로는 학교, 성별, 지능, 동기, 가치, 흥미,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교육수준,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 또래 애착, 유전, 환경적 조건, 진로정체감, 불안, 진로의사결정, 자기효능감, 자아정체감 등의 사회·환경적인 요인들이 있다(문승태, 2003).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대학에서 전공하는 학과는 자신의 미래 직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나아가 전공만족은 미래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Logue, 2005). 전공만족을 진로결정수준의 예측 요인으로 인지하고 전공만족과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를 발견하려고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Logue(2005)의 연구에서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전공만족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며, 개인의 특성과 직업에 대한 관심, 대학 전공과의 관계에 주목하며 세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문적 환경, 직업적 환경에 따라 전공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또한 진로결정수준과 대학생활만족도, 적응도간에 정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학교나 학과에 대한 만족도와 적응도가 단순히 학과 선택의 만족도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활의 주요부분인 학업성취와 진로발달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려준다(이형국, 2007). 강영숙·이은정(2006)은 전북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를 교과과정, 진로방향, 사회적 인식의 세 가지 하위변인으로 구분하여 이들 하위 변인들 각각의 독립변인으로 하고 진로결정수준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을 때 사회적 인식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하위변인인 교과 과정과 진로방향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분석대상 및 변수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성별, 학교유형별 진로결정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 7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범위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1123명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여부(설문지429번, F6Y11003)이고 이를 구분하는 독립변수는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설문지22-2번, F6Y01060), 수업태도(설문지26번, F6Y01073-F6Y01077), 학교생활만족도(설문지28번, F6Y01083-F6Y01092)이다.

2. 변수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종속변수는 진로결정여부이며, 독립변수는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 관련 변수들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표 1〉 변수의 구성 및 설명

변수		변수처리
종속변수	진로결정 여부	결정=1, 미결정=2
독립 변수	전공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수업태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학교생활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IV. 분석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둘째,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의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진로결정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무엇이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종속변수는 이진변수화 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인 대학생들의 성별, 학교유형 빈도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구분		빈도	%
성별	남	894	79.6
	여	229	20.4
학교유형	2년제 전문대학	199	17.7
	3년제 전문대학	64	5.7
	4년제 대학교	836	74.4
	5년제 대학교	10	.9
	6년제 대학교	8	.7
	기타	6	.5
전체		1123	100.0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은 1123명으로 성별의 경우, 남자 894명(79.6%), 여자 229명(20.4%)으로 남자가 더 많았다. 또한 학교유형의 경우 2년제 전문대학은 199명(17.7%), 3년제 전문대학은 64명(5.7%), 4년제 대학교 836명(74.4%), 5년제 대학교 10명(.9), 6년제 대학교 8명(.7), 기타 6명(.5)로 나타났다.

2.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여부에 따른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의 기술통계는 <표 3>과 같다.

<표 3>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 점수의 기술통계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
결정(n=614)	평균	4.41	18.45	33.3
	표준편차	.861	3.72	7.20
미결정(n=509)	평균	4.28	17.59	31.8
	표준편차	.970	3.41	6.40
전체(n=1123)	평균	4.35	18.06	32.65
	표준편차	.914	3.61	6.88

진로를 결정한 집단의 전공만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4.41, .861이고, 수업태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8.45, 3.72이며, 학교생활만족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33.3, 7.20이다. 한편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집단의 전공만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4.28, .970이고, 수업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7.59, 3.41이며, 학교생활만족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31.8, 6.40이다.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및 집단 분류의 정확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모형검정 및 진로결정여부 분류의 정확도

		예측값			정확도
		결정	미결정	전체	
관찰값	결정	511	103	614	83.2%
	미결정	379	130	509	25.5%
	전체	890	233	1123	57.1%

-2LL = 1523.48

χ^2 (절편모형-이론모형) = 23.49(df=3, p=.000), Nagelkerke R^2 =.028

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0인지에 대한 가설검정결과, 절편만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의 $-2LL$ 와 연구자가 설정한 이론모형의 $-2LL$ 의 차이를 나타내는 χ^2 값은 23.49, 이에 따른 유의확률은 .000으로써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에 의해 진로결정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은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진로 결정과 미결정자에 대한 관찰치와 예측치 간의 차이를 보면 진로결정자의 경우 83.2%, 진로미결정자의 경우 전체의 25.5%가 정확히 분류되어 전체적으로는 57.1%의 정확도를 나타낸다.

진로결정여부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진로결정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회귀계수	표준편차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전공만족	-.127	.067	3.613	1	.057	.881
수업태도	-.052	.020	7.118	1	.008	.949
학교생활만족도	-.018	.010	3.219	1	.073	.982
상수	1.908	.461	17.135	1	.000	6.742

전공만족 점수(Wald=3.61, p=.057)와 수업태도 점수(Wald=7.11, p=.008), 학교생활만족도 점수(Wald=3.21, p=.073) 중에서 수업태도 점수만 유의수준 .05에서 진로결정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해 도출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text{Logit(진로결정)} = 1.908 - .052(\text{수업태도})$$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회귀계수(B)는 다른 독립변수들의 값을 일정하게 하였을 때 독립변수의 값이 1단위 증가하면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결정하지 않을 확률보다 e^B 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독립변수들의 점수가 동일하다고 할 때 각 독립변수에서 1점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은 진로결정을 할 확률이 진로결정을 하지 않을 확률보다 수업태도에서 $e^{-.052} = .949$ 배 정도 높아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e 는 자연상수로서 2.718의 값을 가지며 $e^{-.052}$ 는 $(2.718)^{-.052}$ 으로 .949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인 중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결정을 위

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여부에 따른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진로결정을 한 집단의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 점수가 진로미결정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및 집단분류의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에 의해 진로결정여부를 예측하는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진로결정여부에 대한 개별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 학교생활만족도 점수를 제외한 수업태도만 진로결정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합리적 진로결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수업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이 학교 또는 사회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태도 향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과 전공만족, 수업태도,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이 보다 유연하게 직업세계에 입문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직업선택을 하고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제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사회에서 전 국민의 인적자원개발 특히 고학력의 고용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국가적인 수준에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초기부터 자신의 전공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고 올바른 수업태도로 대학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미래 직업을 결정하고 관련정보를 수집하며 노동시장을 탐색해 나가는 것이 대학진로교육의 중요성임을 시사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강선영(1998). 학업성적과 성취목표가 성취기대와 학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영숙 · 이은정(2006).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만족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전북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5, 1-22.
- 고향자(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진로준비 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지혜(2000). 학교유형에 따른 중학생의 체육수업에 대한 태도 및 동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승태(2003).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인과 심리적 변인간 인과관계.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완성(2005). 진로탐색 집단상담프로그램이 진로결정수준 · 진로정체감 ·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효과. 한국진로교육학회, 18(2).
- 이형국(2007). 진로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특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용수(1993). 전공만족도를 중심으로 본 대학생들의 진로사회화 과정에 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9, 107-129.
- 조성희(2011).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서의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진로인식, 진로자아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혜숙(1999). 대학생의 학과 · 학부 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aker, R. W. & Siryk, B. 1989). SAQC Student adap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CA: Western Psychology Services.
- Browne, J. M. (2005). Personality, Life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Status: An Examination of Factors that impact the Career Decision of Black College Students. Ph. D. diss. Howard Univ.
- Crites, J. O. (1973).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Maturity Inventory. Monterey, CA: CTB-Macmillan-Mcgraw-Hill.
- Logue, C. T.(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vocational interest themes, and college major satisfaction. The University of Tennessee.
- Super, D. E. (1957). The Dimension and Measurements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 College Record.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Tolbert, E. L. (1980). Counseling or Career Development(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Abstract ❖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 of University Students

Kim Eun-Joo, Rhee Gi-Jong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university students, who are turning from pre adulthood into adulthood, to make decisions for their career and their future job. Thus, it is meaningful to study the decision making in one's career for university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vise and guide the university students in deciding their career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based on whether the major satisfaction, class attitudes, the result of compar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and career decisions of a group of major satisfaction, class attitude, school life satisfaction scores were higher than the group of career indecision.

Second, the major satisfaction, class attitud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as an independent variable in the model group fo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accuracy of classification analysis, major satisfaction, class attitude, school life satisfaction, career decision by the model to predict whethe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career decision on wheth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individual independent variables analyzed, major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scores than class attitude career decision on whether that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Thus, the suggestions to improve the rational decision making in choosing career for the university students are as follows:

Firstly, measures that could improve the self-efficacy in choosing their career must be made.

Secondly, enforcement of career decision making education must be made for the students from human and social science.

Thirdly, a special program in choosing the future career must be made for the students.

Fourthly, the school must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s with school social welfare in order to systemize the career counseling as well as career education for the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career decision, major satisfaction, class attitudes, school life satisfaction